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도전과 시련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정권이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2008년 5월 4일 산타크루스 주를 시작으로 베니, 판도, 타리하 주가 중앙 정부에 대항하여 자치권 법안을 주민투표로 통과시킴으로써, 에보 모랄레스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회주의적 개헌안을 현실적으로 무력화시켰으며, 심지어 산타크루스를 비롯한 볼리비아 동부 주들은 차제에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일반적으로는 200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의 사회주의적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국민투표만 남겨놓은 제헌헌법이 지방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볼리비아 사태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산타크루스 주와 타리하 주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완전한 지방 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대부분 백인들로 에보 모랄레스의 원주민 정권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혐오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의 차이로 환원할 수 없는 역사적·경제적·정치적·인종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백인 자본가와 기득권층의 도전에 직면한 에보 모랄레스는 오는 8월 10일 주지사와 함께 재신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투표의 결과 어찌하든, 볼리비아의 정치적 상황은 요동칠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볼리비아의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번 호에서는 세계적인 탈식민론(decolorialism) 학자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의 색다른 전망을 소개한다. 이 글은 《레비스타 델 수르》 164호(2006년 3~4월호)에 발표한 “¿Giro a la izquierda o giro descolonial? Evo Morales en Bolivia”이며, 저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 ‘탈식민’은 ‘decolonial’의 역어임을 밝혀둔다. [서라연]

■ 좌파로의 전환인가 탈식민적 전환인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월터 미놀로

우고 차베스의 경우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에보 모랄레스 경우도 ‘좌파로의 전환’ 운운하는 표현은 단지 역사의 한 부분만 포착할 뿐, 탈식민적 전환(giro descolonial)이라는 사실을 조명하지 못한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는 탈식민적 전환의 두 번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와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는 그 전환의 백코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희미한 그림자이다.



월터 미놀로

내 견해로는 에보 모랄레스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뚜렷한 표식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5세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1970년대부터 더 분명히 가시화된 전환의 표식인 것이다. 그 전환은 단순히 좌파로의 전환이 아니고 탈식민적 전환이다. 최소한 마르크스나 레닌 없이도 자신들이 착취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원주민 운동들의 정치적·지적·이념적 리더십 하에 이루어진 남미 좌파의 전환이다.

오래 전 아이티 혁명과 관련해서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 백인의 의식구조에 흑인들은 지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티 혁명은 백인들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이 백인들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혁명은 배후의 백인들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오늘날 ‘탈식민성’을 설명하면서 좌파를 먼저 부각시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탈식민성은 하나의 정치 기획인데, 좌파는 아직 이를 직시할 능력이 없고 우파는 심지어 그에 대해 더 까맣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2005년 12월 모리스 르무안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는 좌파로의 전환만 부각되었을 뿐 탈식민적 전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볼리비아를 지탱하고 자양분을 주는 원주민 유산의 밀도를 파리에 앉아서 파악하기는 힘든 모양이다. “원주민 볼리비아가 라틴 좌파에 합류하다”라는 기사 제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손을 피아노에 내밀지만 건반을 누르지 못한 형국이다. “라틴 좌파가 원주민 볼리비아에 합류하다”라고 했더라면 그 역사적 추이에 더 부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파리에서, 유럽 기원의 라틴 좌파가 원주민 리더십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아이티 혁명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 중심적인 좌파가 좌파의 최고 권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볼리비아가 라틴 좌파에 합류하는 것이지, 라틴 좌파가 원주민 리더십을 따를 수는 없다. 그 제목에서 발생한 구문론적·의미론적 교체에 바로 탈식민적 전환이 달려 있다.

런던의 《이코노미스트》는 모랄레스 집권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시장, 투자, 재정에 입각해 분석했다. 즉 원주민 볼리비아가 라틴아메리카 우파와 색슨 족 우파에 어떻게 합류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르몽드》와 《이코노미

스트》의 기사는 다른 내용이다. 하지만 논리는 동일하다. 두 기사 모두 유일 체제(sistema único)를 초월하여 혹은 좌파와 우파의 극한 대립을 초월하여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의 초기 발언에 예고된 탈식민적 전환과 이탈(desprenderse)이 아직 보이지 않거나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좌파’라는 용어의 기원이 프랑스 정치 무대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 용어는 사실 프랑스 역사와 감수성의 산물이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의회 좌석 왼편에는 ‘진보’ 이념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앉았고, 오른편에는 남부지방의 재력가, 저명 금융엘리트, 지주, 새로 떠오르던 산업가들이 앉았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아벨라르도 라모스는 이러한 프랑스식 근대 정당 분류법이, 식민국가, 반식민국가, 저발전국가(냉전 시기 유엔이 사용한 어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별로 쓸모가 없다고 적시했다.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 좌파는 오프사이드, 식민지로의 장기이식(臟器移植), 유럽 기원의 크리오요 그리고 원주민과 피는 섞였지만 전적으로 유럽 중심적 사고를 지닌 메스티소의 향수어린 메아리일 뿐이다.

그렇지만 볼리비아 역사는 아주 다르다. 식민시대에서 국민국가 형성기까지 원주민들은 결코 의석에 앉아본 적이 없다. 프란츠 파농이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경우를 두고 말하고 있듯이, 원주민은 굳이 마르크스를 읽지 않더라도 억압받고 착취 받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원주민들은 멸시당하고 사회계층에서 배제되어 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나 노동력 공급자로 인식되었다. 그 경험에서 ‘탈식민적’ 사유가 비롯됐고, 오늘날 이 사유의 가장 뚜렷한 표명이 에보 모랄레스의 당선이다. 물론 멕시코 남부의 사파티스타, 에콰도르 안데스 지방의 원주민운동, 칠레의 마푸체(mapuche) 족부터 캐나다의 소위 제4국민에 이르기까지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오른쪽)과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왼쪽)

최근 표명들도 탈식민적 사유의 표명이다.

가르시아 리네라(García Linera)의 부통령 당선은 모랄레스 원주민 리더십의 또 다른 표식이다. 가르시아 리네라의 부통령직 취임이야말로 라틴 좌파가 탈식민적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이다. 그는 스페인에 뿌리를 둔 크리오요 가문 태생이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 그룹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신문 기사에서는 그를 “전 게릴라, 사회학자, 수학자”로 소개한다. 단어 나열 순서가 적합한지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가르시아 리네라가 ‘투팍 카타리’ 혁명군을 지지하는 이념적 활동으로 1980년대 말 투옥되었고, 수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정치평론가로 최근 10년간 코무나 그룹(Grupo Comuna)의 일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했으며, 펠리페 키스페의¹⁾ 고문(顧問)으로 오랜 감옥생활을 같이 했고,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에보 모랄레스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볼리비아 사회운동들에 대한 가르시아 리네라의 연구와 볼리비아 좌파에 대한 그의 비판적 성찰은 산안드레스 대학(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사회학자의 학술연구이자, 각종 사회운동과 아이마라 족 지식인 및 지도자들이 이끌어낸 변화를 감지한 예리한 정치평론가의 학술적 분석이다.

모랄레스-가르시아 리네라 러닝메이트는 최근 15년 동안의 역사적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합이다. 1992년 볼리비아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산안드레스 대학 출신 아이마라 족 지식인 카르데나스(Víctor Hugo Cárdenas)가 산체스 데 로사다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선출된 사건이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카르데나스는 배를 지휘하는 산체스 데 로사다의 부하였을 뿐이다. 모랄레스-가르시아 리네라 조합에서 종족적·사회적 구성이 뒤바뀌면서 탈식민적 전환은 더욱 더 명백해졌다. 가르시아 리네라는 부하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말마따나, 통역이다. 산체스 데 로사다의 라틴-크리오요 시각이 아닌 모랄레스의 원주민 시각이 지휘하는 배의 통역인 것이다.

1) 역주. 펠리페 키스페(Felipe Quispe)는 원주민주의자로 에보 모랄레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BBC월드》 스페인어판은 2005년 12월 9일자에 에보 모랄레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실었다. “아이마라, 케추아, 치키타노, 과라니인들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기업가, 전문직 종사자, 지식인, 예술가들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BBC월드》는 12월 21일 가르시아 리네라를 인터뷰하고 기사를 실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제일 앞으로 뽑았다. “사람들은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가,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를 권좌에 앉힌 정당인 사회주의운동(MAS: Movimiento al Socialismo)의 두뇌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르시아 리네라는 단호하게 부인한다. ‘저는 두뇌라기보다 통역입니다.’라고 밝혔다.”

어제는 유럽 중심적인 좌파가 식민지 및 전(前) 식민지의 해방을 위한 지침을 내렸다면, 오늘은 에보 모랄레스에게서 표출되는 탈식민성이 탈식민적 전환의 지침을 내릴 수 있다.

탈식민적 전환은 우파-좌파-중도파라는 단일 게임법칙에서 이탈이고, ‘다른 관점’(perspectiva-otra)에서의 대화와 교섭을 여는 일이다. ‘다른 관점’이란, 원주민 좌파가 라틴 좌파에 통합된 것을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인데도— 치하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에 함축된 게임법칙 내에서의 다른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운동(MAS)과 제(諸)국민의 주권을 위한 정치기구(IPSP: Instrumento Polític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는 탈식민적 전환의 일부이다.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라면서 우파 특히 워싱턴의 수사학이 정당화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정치구조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에서 지난 선거는 대단히 민주적이었다. 그런데 원주민 국민이든 일반 국민이든 정당이 아닌 사회운동에 표를 던졌다.

MAS-IPSP의 이론과 행동이 마키아벨리에서 마르크스, 토마스 홉스에서 칼 슈미트에 이르기까지의 유럽 중심적인 정치이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 외에도, 탈식민적 전환은 모랄레스 정부의 두 가지 핵심적인 초기 정치경제 조치에서 명확하게 감지된다. 코카(coca) 문제와 탄화수소 ‘국유화’ 문제이다.

플란 디그니다드(Plan Dignidad: 존엄성 강령)는 코카 근절을 위해 미국을 돕는 자애로운 협력자들의 지도에 볼리비아를 포함시켰다. 물론 플란 디그니다드의 선두에 섰던 이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크리오요와 메스티소였다. 크리오요들은 맥도널드 매장에서처럼 워싱턴의 명령을 수행했고, 메스티소들은 맥도널드 본사의 명령을 수행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한 모랄레스는 탈식민적 전환에 기여할 두 가지 근본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볼리비아는 코카인 제로, 마약생산 제로를 추구하지만 코카 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카는, 모랄레스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코카인 제조에 사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안데스 원주민, 즉 아이마라족과 케추아족이 보완적 식이요법으로 씹고 이용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용어는 바꾸기 시작하고 있지만 내용은 바꾸지 않는다. “코카 제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은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볼리비아의 식이요법과 경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웰빙, 일자리, 건강한 식이요법을 악으로 규정하는 제도권 담론과 기만적 윤리를 지탱하는 원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좌파가 내용만 바꿀 뿐이지 동일한 유럽 중심적인 세계관의 게임법칙 속에 머물러 있는 반면, 탈식민적 전환은 일련의 이탈과 용어 교체에 의거한다.

두 번째로 탄화수소의 ‘국유화’를 들 수 있다. ‘국유화’는 좌파 지식인과 우파의 세계화 옹호자들 입맛에 맞지 않는 용어이다. 좌파 지식인에게 ‘국유화’는 1970년대 이야기처럼 들리고, 우파



2008년 3월 10일 라파스에서 유엔의 세계마약연례보고서에 항의하는 볼리비아의 코카재배 농민들. 하나같이 코카 잎을 입안에 가득 넣고 씹고 있다.(AP 통신)

인사들에게는 국경을 지워버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세계화에 반(反)하는, 유행 지난 지역주의이다. 두 경우 모두 승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첫 번째 경우는 국유화를 해결책으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대안’에 문을 활짝 열어놓는 꼴이다—, 두 번째 우파 인사들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계화 반대자들로부터 세계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승리하게 된다.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혀진 에보 모랄레스의 담론은 기본적으로, 자원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목소리는 신(神)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자원 사유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종 인터뷰를 통해 전달된 이 원칙은 세계화에 대한 찬반론만 유포하는 언론과 저서들의 단성적 담론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밀도를 지니고 있

다. 첫째, 신을 언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독교담론(9세속화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의 기저에 있는 담론이다)에 대한 배려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마라 족의 신학적 개념인 파차마마(대지의 여신)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아이마라 족의 우주론은 1610년 베이컨이 자연을 인간의 외부 존재로 규정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면서 발생한 우주론적 변화와는 다른 우주론이다. 자연과 인간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원주민 언어에서 자연은 ‘대지’이다. 볼리비아에서 ‘대지’라는 말은 측량과 매매의 대상 이상의 훨씬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권력의 식민적 매트릭스, 인종주의, 폭력, 질곡과 착취, 탈식민적 투쟁과 자유에 대한 희망, 지배와 지속적인 착취를 종식시킬 희망과 관련된 함의들로 가득 차있는 것이다. 이 원주민 우주관의 의미 성좌에서 탄화수소는 물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아니다.

‘상품’은 서구 우주관의 의미 성좌이다. 서구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대지가 자원으로 변했다. 유럽인과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자원이란 인간의 권리이지 상품이 아니다. 자원은 “자연 속에 살고 자연이 살도록 해준” 사람들의 권리이다. 에보 모랄레스가 국유화를 언급할 때, 단순히 자원은 볼리비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다시 용어를 바꾸고 있고, 자원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담론에서 벗어나 자원이 “인간 권리의 하나”임을 암시한다.

에보 모랄레스는 경제의 두 영역을 하나의 근본적인 정치원칙으로 묶어서 외국인 투자자와 이들의 ‘내국인’ 앞잡이들에게 “우리는 파트너를 원하지 주인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주변부 좌파가 —이 경우에는 라틴 좌파— 원주민의 탈식민적 전환 리더십에 자세를 낮춘다면, 이 정치적 원칙은 주변부 좌파와

양립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변부 좌파 및 라틴 좌파는 한편으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그 변형들에 종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의 주변부적 독창성을 지워버리거나 혹은 이로 위장한 유럽 기원 백인남성 좌파의 파편적 시각에 국한될 것이다. 원주민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유례없는 사건은 그 자체가 탈식민적 전환의 또다른 요소이다. 라틴성(latinidad)은 우리 라틴아메리카를 정의하는 특질이 아니고 크리오요-메스티소 정체성과 그들의 우파 및 좌파 정치기획을 정의하는 특질이다. 인디오성(indianidad)이 —이 개념과 관련해서 1970년대 볼리비아에서는 파우스토 레이나가(Fausto Reynaga)라는 강력한 이념적 지도자가 있었다— 에보 모랄레스와 함께 볼리비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르시아 리네라는 앞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에보 모랄레스는 롤라주의자도 아니고 차베스주의자도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내가 금방 주장한 모든 것이 가르시아 리네라의 말과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보 모랄레스가 롤라주의자도 차베스주의자도 아닌 이유는 롤라나 차베스는 지난 5세기 동안 ‘차이’를 고수했던 투쟁의 기억과 과거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이 차이를 고수했다는 것이지, 순수하고 진정한 ‘인디오적 본질’을 유지했다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인의 기독교 기획, 세속적인 볼리비아인(人) 크리오요와 메스티소의 기획, 발전주의 기획과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의 물신화에 동화시킬 수 없었던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고수했다. 에보 모랄레스가 이탈할 수 있고, 탈식민적 전환을 할 수 있고, 결코 식민화되지 않은 주체성에 의거한 경제정책과 정치경제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차이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경우는 구하(Ranajit Guha)가 인도

경우를 두고 생각한 것의 재판일 수 있다. 대영제국이 결코 식민화시킬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 무엇이란 바로 인도인들의 기억과 주체성이라고 구하는 생각했다. 같은 일이 볼리비아에 일어났다. 식민화되지 않은 그 기억과 주체성에서 ‘새로운 좌파’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안데스에서 적어도 400년 역사를 지닌 탈식민적 전환의 계단 한 칸을 더 올라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고 차베스는 에보 모랄레스보다 앞서서 나아가기는 해도 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볼리바르 혁명’은 차베스의 행보를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수단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베스는 자신의 혼혈성을 수용하는 기획을 내놓았다. 이는 에보 모랄레스가 인디오성을 수용하는 것과 필적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페론과 차베스를 포퓰리스트라며 싸잡아 폄하하지만, 차베스가 자신의 혼혈성을 수용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페론은 자신이 노동부장관 시절부터 지원하던 ‘검은 머리’와²⁾ 가무잡잡한 얼굴의 노동자들과 자신, 즉 백인 아르헨티나인을 가르는 식민적 차이(diferencia colonial)를 결코 넘어서지 않았다. 반면 우고 차베스는 처음부터, 크리오요 엘리트가 남미와 스페인어권 카리브 지역에서 독립 때부터 유지한 경제적·정치적·자기중심적 지배에서 배제된 메스티소의 기억을 수용했다. 이것이 차베스가 탈식민적 전환에 공헌한 점이고, 그의 ‘볼리바르 혁명’ 기획의 버팀목이다.

아마도 룰라의 당선이야말로 ‘좌파로의 전환’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이야말로 —최근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실제로 주변부 좌파의 전형적인 예, 유럽 좌파의 교본을 따랐다고보다는 내부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2) 역주. 검은머리(cabecitas negras)는 머리카락이 검은 색인 사람을 지칭하는 인종차별적인 용어이다. 페론 시절에 보통 백인 기득권층이 하층민들이나 노동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역사로부터 성찰을 이끌어 낸 좌파의 사례이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유럽 중심적인 좌파는 물론 주변부 좌파까지도 문제시하는 탈식민적 전환의 경우이다. 동시에 볼리비아는 전 지구적 좌파라는 꿈은 이미 의미가 없고, 유럽 중심적인 좌파와 그 현지 대리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 꿈을 포장하고 선전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라연 옮김]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 -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미국의 듀크대학 교수이다. 기호학을 공부한 미놀로는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 그 이름 뒤에 감춰진 현실 The Idea of Latin America』 (2005) 등이 있다.
